

일본, 「제2기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계획」에 따라 전통 건조물이 있는 7개 도시를 신규 인정

해당국가	일본	기관(기업)	농림수산성, 문부과학성, 국토교통성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건축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□ 일본 정부는 「역사 마을 만들기 법^{*}」에 근거한 「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계획(제2기)^{**}」에 따라 7개 도시를 신규 인정하는 등 전통 건조물 보존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산

* 「지역의 역사적 풍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」(2008년 시행). 성·신사·사찰 등 역사적 건조물과 지역 고유의 전통 행사·민속 예능이 어우러진 거리 경관을 보존·활용하기 위한 일본의 핵심 도시재생법

** 일본 도시계획 용어로서 우리나라 "역사 경관 유지 계획"에 해당

- 「역사 마을 만들기 법」은 일본 정부의 핵심 정책 체계로 성·신사·사찰 등 전통 건조물의 체계적 보존·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
 - 시정촌(일본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우리나라의 시·군·구에 해당)이 책정한 「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계획」을 국가가 정식 인정하여 법률상 특례 및 각종 사업 지원 시행
 - 전통적 활동과 어우러진 시가지 환경의 유지·향상을 지원하는 정책 체계 구축
- 농림수산성, 문부과학성, 국토교통성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「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계획」은 제2기 계획에 따라 니가타현 무라카미시 등 7개^{*} 도시를 2026년 3월 19일부로 신규 인정
 - * 니가타현(무라카미시), 나가노현(치쿠마시), 시즈오카현(미시마시), 아이치현(오카자키시), 미에현(이가시), 와카야마현(유야사정), 와카야마현(히로카와정)
 -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도시는 100개이며, 이 가운데 제2기 계획에 의해 인정받은 도시는 51개로 전체의 51%를 차지

□ 일본 정부의 전통 건조물 보존 정책은 제1기 계획의 정량적 성과 검증을 통해 제2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도출

- 각 도시별로 기존 제1기 계획의 전통 건조물 보존 정책에 의해 창출된 성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여 정책의 효과를 명확히 입증
 - 무라카미시는 10년간 90건의 건조물을 수리하고, 경관을 정비하였으며, 51건의 역사적 풍치 형성 건조물^{*}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역사문화 경관을 지켜내는 실적을 달성
 - * 역사적 풍치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조물로 시정촌장이 지정한 건물로 지정될 경우 보존 수리비 보조 등 지원
 - 치쿠마시는 다케미즈와케 신사의 신주를 관리하는 마쓰다 가문 저택을 고문서 전문 박물관으로 개관한 결과 코로나로 감소했던 신사 방문객이 6.4만 명까지 회복
- 제2기 계획에서는 제1기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전통 건조물 보존·활용 정책 흐름을 단계적으로 강화
 - 미시마시는 제2기 계획에서 「문화재 보존·활용 지역계획」 및 「사적 등 보존·활용계획」에 따라 양호한 경관을 형성한 지구의 추가 지정 검토, 외국인 관광 수요에 따른 안내 기능 강화 등을 추진

※ 출처 : 농림수산성(2026.03.19), 歴史的風致維持向上計画 (第2期) の認定について